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11 — 12월)
6호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진 기적과 변혁의 해 2022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어머니, 그 부름은 같아도

통일화보

주체111(2022)년 6호 (11 – 12월)

| 불멸의 업적 |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진 기적과 변혁의 해 2022년 4

| 절세의 위인 |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 엄숙히 선언 4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공화국공군무력의 대규모비행총출동
작전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5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국방과학원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 진행 6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진행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6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6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 진행 72

위대한 우리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600mm초대형방사포증정식 성대히 진행 74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78

| 소 식 |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80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진행 82

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 진행 84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88

| 공화국의 현실 |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대성산아이스크림 90

늪건구제품생산에서 한몫하는 공장 94

우리의 멋, 우리식 문명창조의 선도자가 될 열의 안고 98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 102

쟁쟁한 아동음악가수들이 자라나는 《꾀꼴새학교》 106

| 인물소개 |

절세위인의 슬하에서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예술인 110

삿갓봉탄전의 박사지배인 114

| 판이한 두 현실 |

어머니, 그 부름은 같아도 116

| 슬기로운 우리 민족 |

민족음식 동치미 124

옛 그림 김홍도와 그림 《마당질》 125

\- -

이것이 2022년 남조선의 민심이다 118

표지: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의 마음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뒤표지: 올밀대의 설경

46

90

98

106

116

주체조선의 국위와 국광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께 최대의 영광을!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진 기적과 변혁의 해 2022년

2022년은 보건위기와 자연재해가 겹쳐들고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문자 그대로 최대국난의 해였다.

하지만 공화국은 운명적인 이해에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인민의 안녕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인민의 복리를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2022년을 사상초유의 보건위기를 끝끝내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해, 인민을 위한 놀라운 기적적사변들을 련이어 창조한 대전환의 해, 인민의 새 문명의 해로 빛내일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안아오신 기적

인민이라는 존재를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이 여기시고 방역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고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까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이 있어 공화국은 사상최악의 방역위기를 90여일만에 종식시키는 세기적인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종합진료소

만유병원
ANYU HOSPITAL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주시였다.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실

수도 평양에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들이 새로 일떠서고 함경남도 련포지구에 세계굴지의 대온실농장이 보란듯이 솟아났으며 나라의 곳곳에 부흥강국의 면모에 어울리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사회주의 새 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행복의 별천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경루동에서 살게 될 공로자들과 함께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통일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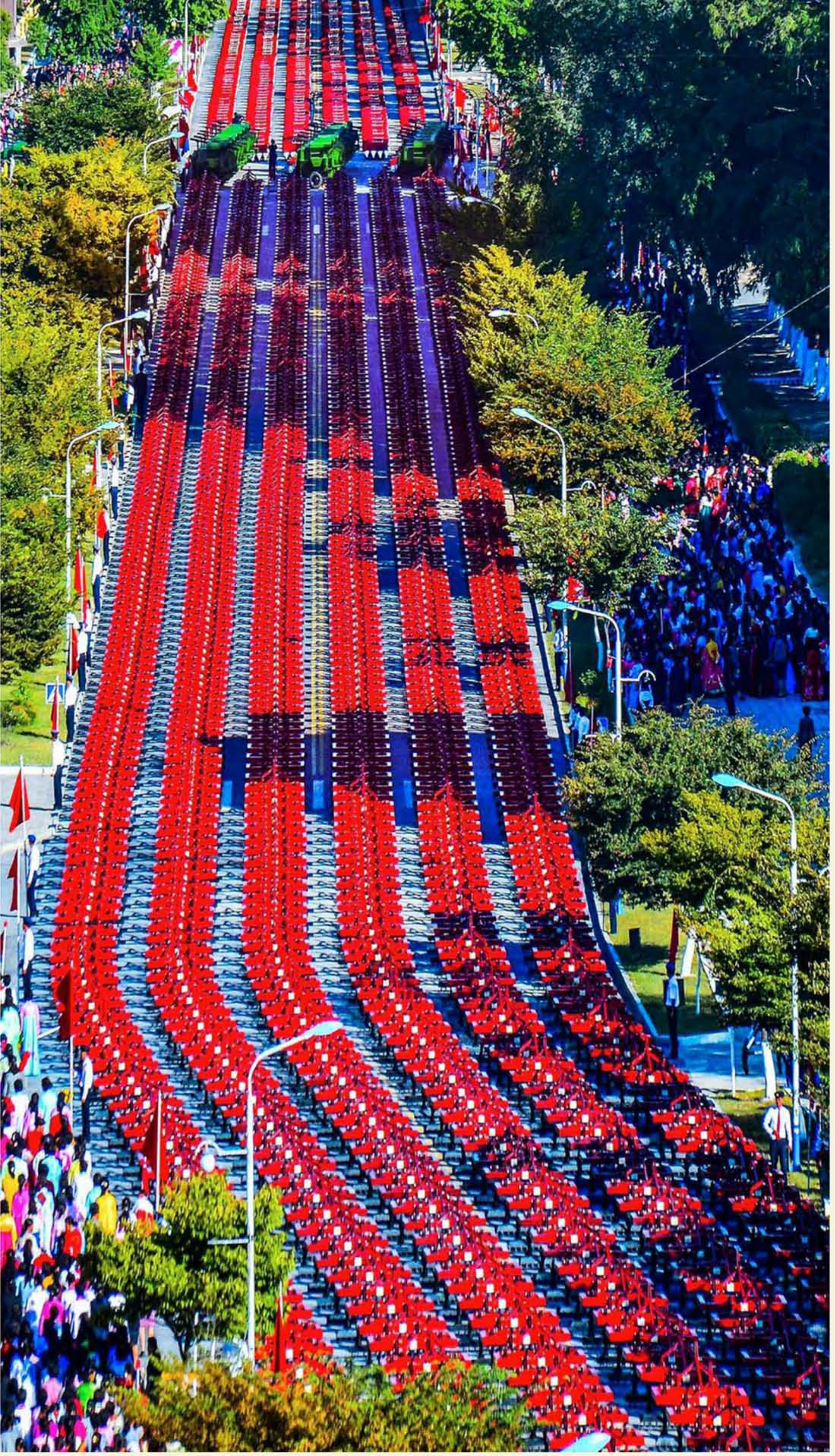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련포온실농장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

지방공업을 추켜세워 전체 인민이 다같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이 기술공정과 기술수단의 현대화수준이 높고 경영관리수준이 향상되여있으며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우리 나라 지방공업공장의 표준,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당의 은정속에 황해남도에 펼쳐진 농기계바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의하여 황남땅에 농기계바다가 펼쳐졌다.

농기계들을 줄지어 세운 부지면적만 하여도 축구경기장 8개의 면적에 달하는 6만여㎡, 한줄로 세운다면 무려 50리! 화물자동차에 싣는다면 3천여대!

희한한 농촌살림집건설의 새 력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따라 올해부터 농촌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였다. 농촌살림집건설의 첫해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곳곳에 일떠서 농촌의 발전을 알리는 새시대의 변혁적실체가 눈앞에 펼쳐졌다.

시련속에서도 끝없이 베풀어진 후대사랑, 미래사랑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여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이 어린이들에게 정상공급되였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전국의 모든 신입생들이 새 교복과 신발, 책가방과 학용품을 일식으로 받아안았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대적의지 엄숙히 선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11월 18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결과를 통하여 우리 국가전략무력을 대표하게 될 신형중요전략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과 세계최강의 전략무기로서의 위력한 전투적성능이 뚜렷이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시험발사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위협도 억제할수 있는 신뢰할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것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적대응놀음은 곧 자멸이라는것과 저들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더욱 명백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성을 피력하시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적들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우리 당과 정부의 초강경보복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321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1월 18일에 단행된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서 커다란 공헌을 세운 붉은기중대 전투원들과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몸소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완성이라는 거대한 사변으로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존엄을 억세게 지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흠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힘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국방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웅대한 목표를 관철해나가는 투쟁에서 순결한 충실성과 비상한 정신력, 뛰여난 과학기술력으로 이루어낸 거대한 결정체를 세계앞에 당당히 쏴올림으로써 날로 장성하는 우리의 군사적강세를 확신케 하고 우리가 비축한 핵전쟁억제력의 가공할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친 미더운 국방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정을 담아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군건설대업을 하나하나 이룩할 때마다 갖은 고생도 모두 인내해내며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해준 우리 인민의 충심과 애국심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무조건적인 지지성원속에 떠받들려 태여난 우리의 《화성포-17》형은 분명코 우리 인민이 자기의 힘으로 안아온 거대한 창조물이며 전략적힘의 위대한 실체이고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화성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온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앞으로도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을 달성해나가는 전진로상에서 자기들이 지닌 막중한 사명감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무조건적인 관철정신으로 결사분투함으로써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공화국공군무력의 대규모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을 맞으며 11월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한 공군비행대의 총전투출동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5개 사단 20여개 련대안의 비행사 705명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따뜻이 축하격려해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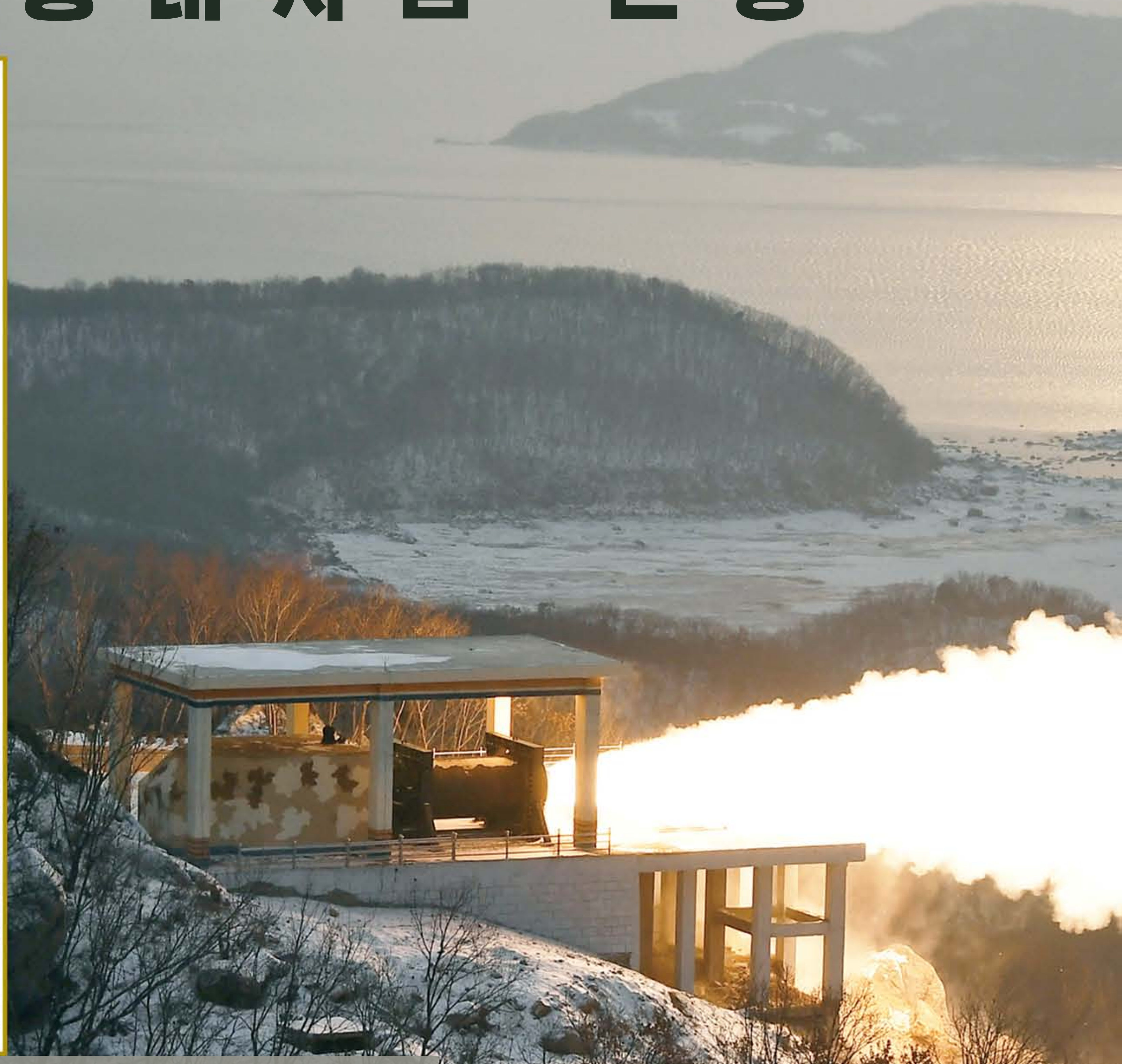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적들의 대규모련합공중훈련에 대한 견결한 대응의지와 압도적인 전투정신을 안고 대규모비행총출동작전을 성과적으로 단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투철한 대적정신과 무적필승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는데 공헌한 공군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항공절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 불러주시고 크나큰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상 전례없는 대규모의 항공작전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신속하고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우리 공군의 사상정신적우세와 더욱 철저하고 더욱 무자비한 대적행동원칙, 우수한 실전능력을 만천하에 떨친 미더운 하늘초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무적의 공중신화는 그 어떤 첨단전투기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가 창조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면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리는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을 체질화한 영용한 비행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령공을 결사수호한 인민공군의 혁혁한 무훈은 조국청사에 사변적대승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공군장병들이 앞으로도 열화같은 충성과 무비의 용감성, 영웅적전투정신으로 주체적항공무력의 최전성기를 빛내이며 국방력강화와 국가의 자존사수, 국위선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국방과학원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 진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강화의 중요핵심목표들을 결사완수하려는 국방과학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이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지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12월 15일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중대시험이 진행되였다.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tf 추진력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에서 중대시험을 지도하시였다.

이번 시험은 추진력벡토르조종기술을 도입한 대출력고체연료발동기의 모든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시험결과 발동기의 추진력과 비력적, 연소특성, 작업시간, 추진력벡토르조종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증되였다.

중대시험을 통하여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체계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방과학원에서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문제를 훌륭히 해결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최단기간내에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전체 국방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위력한 창조물을 이루어낸 자부심과 자신심에 넘쳐 하루빨리 강하고 확신성있는 또 하나의 초강력을 억세게 틀어쥠으로써 당중앙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주체111(2022)년 11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과 현시기 당과 혁명발전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11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초유의 역경이였지만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력에 의하여 국가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에로 상승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23년은 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라고 하시면서 올해보다 더 큰 승리와 성과로 빛내여야 할 새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을 위한 작전을 려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결론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포치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가 12월 26일 저녁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로 새시대 주체의 사회주의법건설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법이 자주적인 국가건설과 인민의 권익보장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며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를 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긍지높은 50년사가 응축된 보고를 청취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의 법이 명실공히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는데서 맡고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새겨안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보고대회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만년대계를 확고히 담보하는 주체의 정치헌장, 인민의 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 존엄높은 인민공화국의 절대적인 국위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 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 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가 검토하여 제기한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섯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페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성과 혁명성, 헌신성에 의하여 전원회의결정들이 착실한 집행과 실제적인 변혁에로 이어지고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는 끝없이 펼쳐질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시며 페회를 선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행로에 특유의 중대한 변곡점을 마련한 의의깊은 계기로 성스러운 주체혁명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제8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정치국회의가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정치국은 2일간에 걸쳐 부문별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수정, 보충할데 대하여 제기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연구하였으며 중요한 심의공정을 거쳐 결정서초안을 최종완성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또한 국가예산심의조가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청취하고 검토하였으며 전원회의의 승인에 제기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정치국은 2023년도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전원일치로 결정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나서는 기타 일련의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최근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주객관적형세와 앞으로 예견되는 조건과 환경에 대하여 분석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원칙과 투쟁방향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우리당 전원회의에 드리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의 선물
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 성대히 진행

군수로동계급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드리는 600㎜초대형방사포증정식이 12월 3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정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증정식에 참석하시였다.

군수로동계급대표가 증정보고를 하였다.

그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받들어나갈 전체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팀없는 신념과 충성의 결의가 담긴 증정서를 **김정은**원수님께 정중히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강력한 국방건설구상을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떠받들 불굴의 기개를 안고 분투하며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룰 핵심타격장비들의 증정으로 전원회의사업성과를 절대지지해주고 불굴의 투쟁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준 군수로동계급의 진정에 감사를 표하시고 열정넘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군수로동계급과 절대의 힘을 지닌 자립적인 국방공업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제일 큰 자랑중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수공업부문의 전체 혁명전사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웅대한 국방발전전략의 성과적실행에 총궐기해 분투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초대형방사포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을 량심과 의리로 받드는 군수로동계급의 투철한 사상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다시금 평가하시고 충성의 전통과 력사를 이어 혁명을 위해 계속 헌신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966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5월1일경기장에서는 신년경축대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경축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 수도시민들이 대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천만년 받들어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공연에는 어머니당을 열렬히 칭송한 찬가들과 로동당시대의 명곡들, 무용종목이 올랐다.

대공연에 출연한 공훈국가합창단,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은 참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형상으로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신년경축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 날로 더해만 가는 속에 온 나라 인민이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력기관 일군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은 각계층 인민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올리였다.

만수대언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수많은 인민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각계층 근로자들의 덕성발표모임과 맹세모임 등이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그리움의 12월과 더불어 펼쳐진 일심의 화폭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대한 새 승리를 앞당겨나갈 인민들의 불같은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실증하였다.

글 본사기자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한없이 경건한 마음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각계층 근로자들

중앙로동자회관에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결의모임이 진행되였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진행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다음의 의정들을 승인하였다.

1.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소년단원들은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되자》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2.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

우리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강령적인 서한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가 정중히 전달되였다.

대회는 첫째 의정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전체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과 열렬한 박수속에 결정서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주의조국의 참된 아들딸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 결정하였다.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항상 명심하고 조선소년단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영원히 우리 당만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열렬한 애국심과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조선의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김 정 은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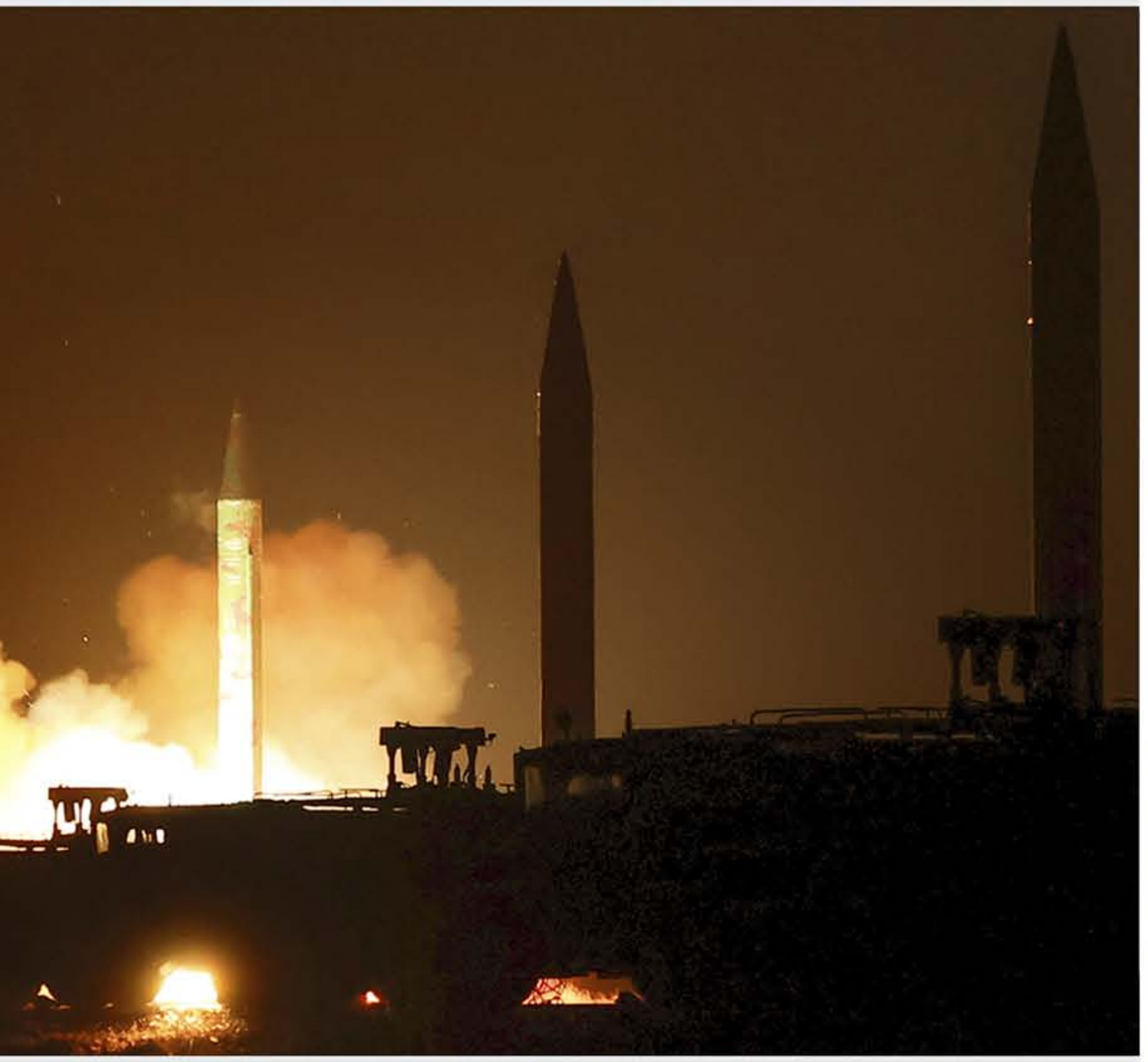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11(2022)년 12월 27일

소년단기발높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한

조선인민군의 군사작전 진행



남조선지역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핵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수백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원한 력대 최대규모의 미국남조선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실시되였다.

엄중한 상황에 대처한 철저하고 견결한 대응의지와 공화국무력의 군사적능력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을 시위하고 우리 장병들의 단호한 보복의지에 필승의 신심을 더해주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들을 단행하였다.

모든 대응군사작전들은 계획된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으며 우리 군대의 고도의 작전수행능력이 만족하게 평가되였다.

작전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무력은 적들의 련합공중훈련에 철저히 대응하였으며 적공군의 《우세론》을 맹목시킬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였으며 우리 군대의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절대적인 대응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굳히였다.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

국가우주개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12월 18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험을 통하여 우주환경조건에서의 촬영기 운용기술과 통신장치들의 자료처리 및 전송능력, 지상관제체계의 추적 및 조종정확성을 비롯한 중요기술적지표들을 확증한데 대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발사의 최종관문공정을 거친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준비를 끝낼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요시험결과는 즉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되였다.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대성산아이스크림

—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

《쵸콜레트감복숭아아이스크림이 참 별맛이지.》, 《난 딸기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대성산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이다.

보기에도 군침이 돌고 달크무레한 향기가 풍기는 아이스크림들의 맛과 향기가 새롭고 독특하기때문이다.

대성산기슭의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다.

지난 10월에 준공한 이 공장에는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된 아이스크림작업반과 음료작업반이 있다.

저가락자동공급기와 홰불기계손을 비롯한 최신식설비들을 갖춘 아이스크림작업반에서는 쵸콜레트감복숭아아이스크림, 들쭉아이스크림, 딸기아이스크림, 망고아이스크림 등 갖가지 아이스크림들이 생산되고 있다.

음료작업반에서는 복숭아단물, 귤단물, 사과탄산단물, 귤탄산단물 등과 커피우유, 파이내플우유와 같이 맛좋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음료들도 만들어지고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솟아난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에서 뿜어져나오는 독특한 아이스크림향기가 온 나라 곳곳으로 퍼져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늪건구제품생산에서 한몫하는 공장

— 만경대애국늪창공장 —

만경대애국늪창공장은 재일동포들의 애국지성으로 1986년에 일떠선 늪건구생산기지이다.

이미 공장에서는 오래된 기계설비들을 갱신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각종 늪건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올해에 공장에서는 수도의 살림집건설과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늪건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한편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형재직장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용해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갖가지 형태의 늪건구소재들을 생산하였으며 표면처리직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소재도금의 질을 한층 높이였다.

부속품직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여러가지 형타들을 제작완성하여 늪건구부속품생산을 늘이고 조립직장에서는 늪창과 출입문을 비롯한 제품들의 조립속도와 질을 높이는 한편 새 제품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의의깊은 해에 질좋은 늪건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송신, 송화지구의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에 기여한 이 공장은 오늘도 화성지구 살림집건설에 요구되는 제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들을 창조하고있다.

사진 박주성, 글 윤금철

공장에서 생산하는 늄창, 출입문, 수경온실들을 비롯한 각종 늄건구제품들은 유용할뿐 아니라 그 질이 담보되여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우리의 멋, 우리식 문명창조의 선도자가 될 열의 안고

– 은하무역국 은하기술준비소 –

얼마전 녀성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녀성옷전시회-2022》에서 은하무역국 은하기술준비소의 전시대가 남달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상의의 옷깃은 댕기로 형상하고 치마는 보석과 진주알을 배합한 꽃따붙임장식을 주어 활동적이면서도 우아함과 세련미를 자아내는 녀자양복과 앞장식을 조선의 국화 목란꽃으로 수를 놓고 허리띠는 리봉형식으로 하여 매력과 경쾌함을 살려주는 달린옷들.

지난 시기에도 은하기술준비소는 전국조선옷전시회와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전시회를 앞두고 이곳 설계가들은 각이한 년령에 따르는 녀성들의 몸매와 구매자들의 기호, 취미, 직업별특성에 맞게 피복도안창작과 설계에서 새것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손전화사진기에 의한 형지입력프로그람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재봉공들은 앞선 피복가공기술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담보하였다.

우리의 문화, 우리 식의 멋과 향기가 차넘치는 희한한 문명을 그려보며 하나하나의 피복제품마다에 지성을 바쳐가는 이곳 봉사자들.

오늘도 이들은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문화, 우리 식의 류행을 널리 창조하고 빛내여나갈 열의를 안고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윤금철

《녀성옷전시회-2022》에서 은하무역국 은하기술준비소가 받은 상장

생신하면서도 개성이 뚜렷하고 우아한 정서가 풍겨와 누구나 명화폭을 감상하는듯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은하기술준비소의 전시대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

— 중앙식물원 분재작업반 —

분재는 볼멋이 있는 식물을 화분에 심어 생육을 제한억제하면서 조형예술적으로 가공하여 옛 나무와 같이 느끼도록 하는 관상식물이다.

보느라면 절로 감탄과 류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분재.

분재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험한 산발들을 오르내리며 분재로 될만한 바늘잎, 넓은잎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식물들을 채집해야 하고 묘목들도 자래워야 한다.

식물의 자라기에 알맞는 용기선정으로부터 기질만들기, 뿌리와 가지자르기, 모양잡기 등 가공 및 재배과정도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다감한 정서를 자아내는 각종 형태의 분재들을 성의를 다해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이 바로 중앙식물원의 분재작업반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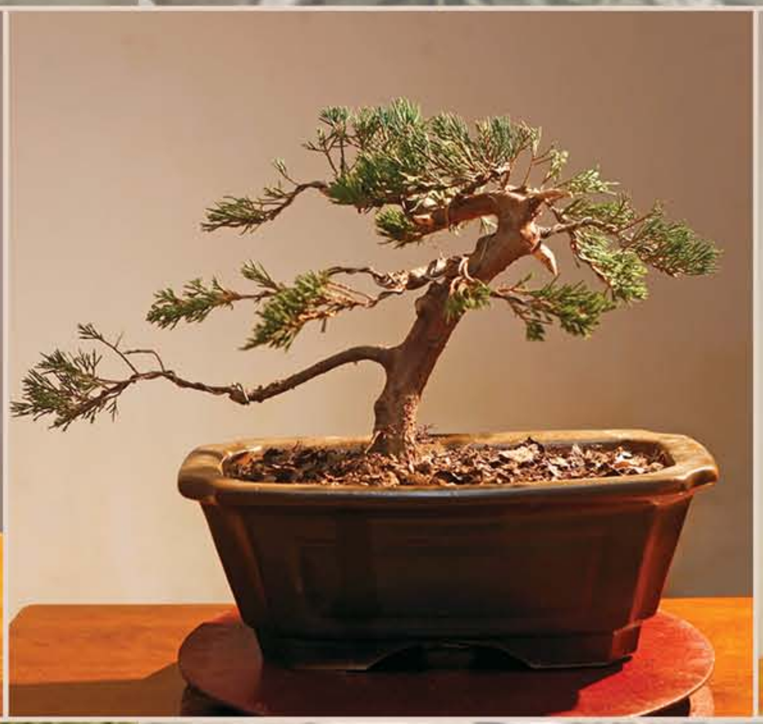
작업반이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들은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특이한 모양새를 가진 분재들을 키워내고있다.

작업반원들은 올해에만도 1 000여그루의 분재묘목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고심어린 노력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기울어진형, 풍경형, 바위형 등 관상적 가치가 큰 분재들은 수백그루가 넘는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창조적지혜를 합쳐 풍경형, 기울어진형, 바위형 등 특이한 모양새를 가진 분재를 만들어 키워가고 있는 작업반원들



분재만들기

1 채취한 소재를 작업대우에 놓는다.

2 용기에 고정할 철사를 설치한다.

3 알맞는 기질을 적당히 편다.

4 불필요한 뿌리를 다듬는다.

5 나무를 용기에 옮긴다.

6 철사로 나무를 고정시킨다.

7 기질이 골고루 들어가게 다져준다.

8 자연돌을 놓고 이끼를 덮어준다.

9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는다.

10 철사로 모양을 잡고 물을 준다.

쟁쟁한 아동음악가수들이 자라나는 《꾀꼴새학교》

— 선교구역 률곡고급중학교 아동음악반 —

《소년장수》, 《령리한 너구리》를 비롯한 아동영화들에서 나오는 아동음악과 더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학교가 있다.

《꾀꼴새학교》로 불리우는 선교구역 률곡고급중학교이다.

명랑하고 청신한 목소리로 수많은 아동음악들을 훌륭하게 형상한 이 학교 아동음악반은 1969년에 조직될 당시 20여명에 불과하였다.

학교에서는 음악강당과 기초훈련실, 률동훈련실, 종합훈련실들을 꾸려놓고 천성적으로 예술적소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교원들은 음악의 기초인 발성련습에서 매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는 한편 음색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에 맞게 성악훈련에 적용하였다. 학생들의 소리색갈에 따라 노래들을 선정하고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적용하면서 률동훈련에도 힘을 넣었다.

학생들도 예술적기량과 형상과제들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이악하게 노력하여 그 어떤 주제의 아동음악도 형상해낼수 있게 준비하였다.

하여 지난 수십년간 이 학교에서는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성악배우들과 재능있는 음악교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사진 최광혁, 글 윤금철

아동음악반에서는 오늘까지 수많은 예술영화, 아동영화, 만화영화들에서 나오는 아동가요들을 1 000여곡이나 훌륭히 형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만수대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박영순선생과 일군들을 만나주시였다. 주체93(2004)년 12월

절세위인의 슬하에서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예술인

— 전 만수대예술단 고문 박영순선생 —

이 땅의 한사람한사람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한생을 값있게 빛내인 문예인들속에는 전 만수대예술단 고문이였던 박영순선생도 있다.

1937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여난 그는 전후 평양음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전문예술단 성악배우로 활동하다가 만수대예술단의 전신인 국가중창단의 한 성원으로 선발되였다.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음악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58(1969)년 어느날 국가중창단에 나오시여 노래도 잘하고 대중의 신망을 받고있는 그를 남성중창조의 조장으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수백차례나 몸소 현지에 찾아오시여 남성중창조의 예술적형상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 그가 뜻밖의 호흡기질병으로 무대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을 때에는 만수대예술단 단장의 중임도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절세위인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 그는 30대초엽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국내공연들과 40여개 나라들에 대한 방문공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는 비록 작가는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숭배의 마음을 안고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4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그이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장군》 등 수십편의 가사를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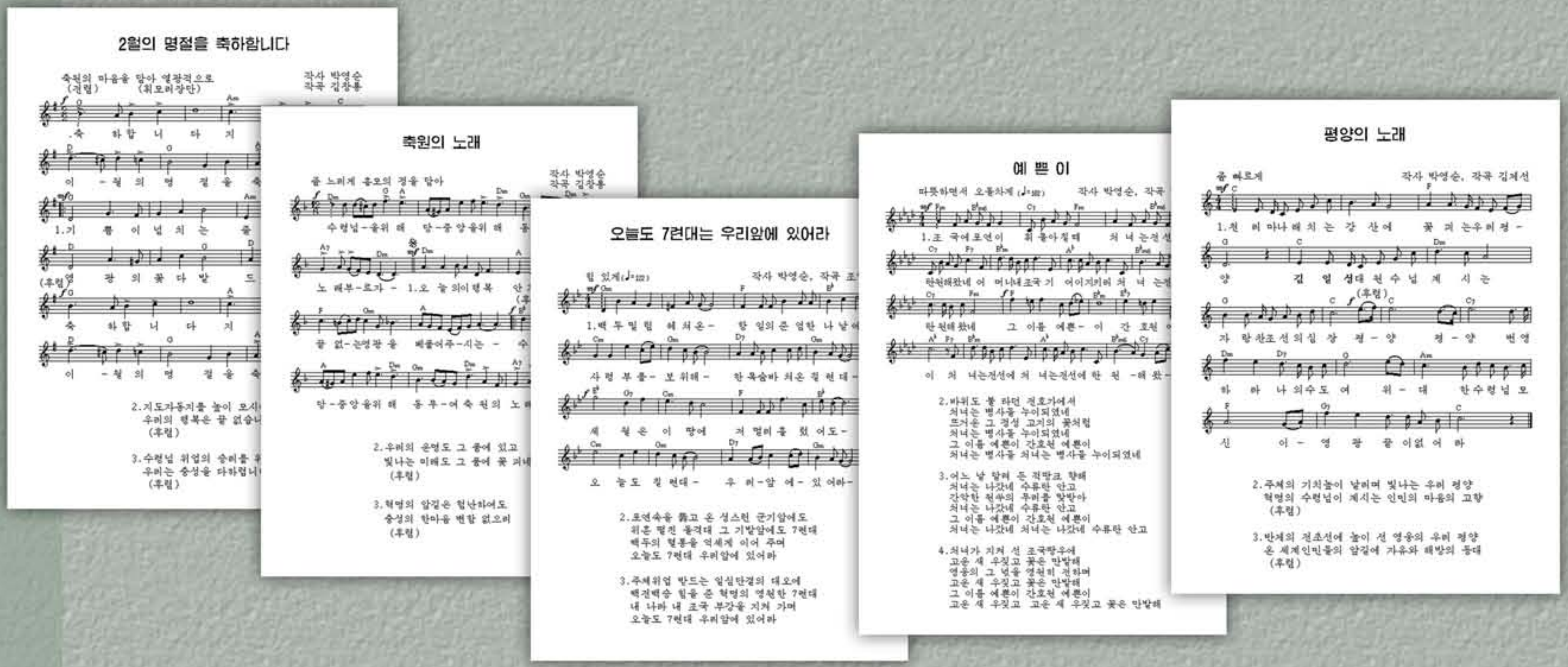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능숙한 연기와 예술적기량으로 수령복을 받아안은 민족의 영광을 소리높이 노래하고 주체예술의 위력을 떨치는데 이바지한 그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에는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악배우로, 재능있는 문예인으로 한생을 값있게 산 박영순선생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글 윤금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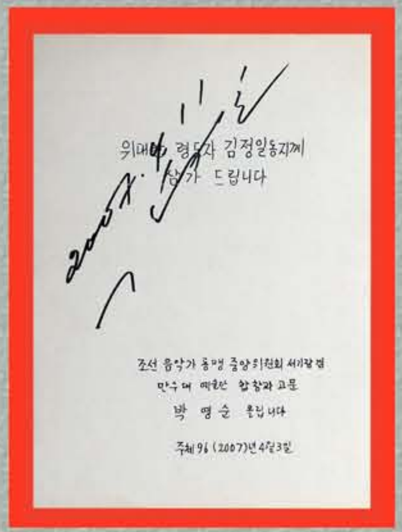
만수대예술단 성악배우시절의 박영순선생

창작사업에 열정을 바쳐가는 박영순선생



박영순선생이 창작한 작품들의 일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
주신 친필서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

주체110(2021)년 9월 15일 (수요일) 로 동 신 문 [2]

음악예술로 수령을 받들고 혁명을 보위한 참된 문예전사

만수대예술단 고문이였던 박영순동지의 한생을 더듬어

충성의 노래를 낳은 샘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박영순선생의 령전에 보내주신 화환

⇑ 박영순선생의 한생에 대하여 소개한 《로동신문》

아버지가 걸은 충성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박영순선생의 자손들

삿갓봉탄전의 박사지배인

–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철호 –

대학졸업증을 들고 탄광을 찾아온 청년, 탄전의 주인이 되여 석탄산을 높이 쌓아갈 포부로 가슴 들먹이던 그가 바로 수십년전의 조철호지배인이였다.

탄전에 뿌리를 내린 그가 탄광의 지배인으로 사업한지도 근 20년.

그는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석탄증산을 위해 열정을 바쳐갔다. 그가 애쓰는것만큼 석탄산은 높아갔다.

하지만 련이은 자연재해와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난관은 겹쌓였고 석탄생산량은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았다.

자신부터 설비개조, 기술개조를 위한 연구사업에 앞장섰다.

하여 무연탄중박층채굴에 관성식적재운반설비가 창안도입되고 갱내운반계통의 삭도화와 지상과 막장에서의 석탄, 버럭운반용륜환식삭도화가 실현되였으며 앞선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리익을 주었다.

이 나날에 그는 여러 차례 과학기술혁신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고 2016년에는 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다.

지배인이 앞장에 서니 온 탄광에 과학기술열풍이 불었다.

막장은 생산으로 들끓고 석탄산은 삿갓봉과 어깨를 겨루었다.

올해 62살의 박사지배인, 탄광사람들은 그를 두고 비록 몸집은 크지 않아도 과학기술의 힘으로 삿갓봉의 지심을 흔드는 힘장수라고 부르군 한다.

사진 최광혁, 글 리대성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석탄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해 애쓰고있는 조철호지배인

조철호지배인이 받은 전국과학기술축전과 과학기술혁신상 증서들

기술혁명수행에 앞장선 청년탄부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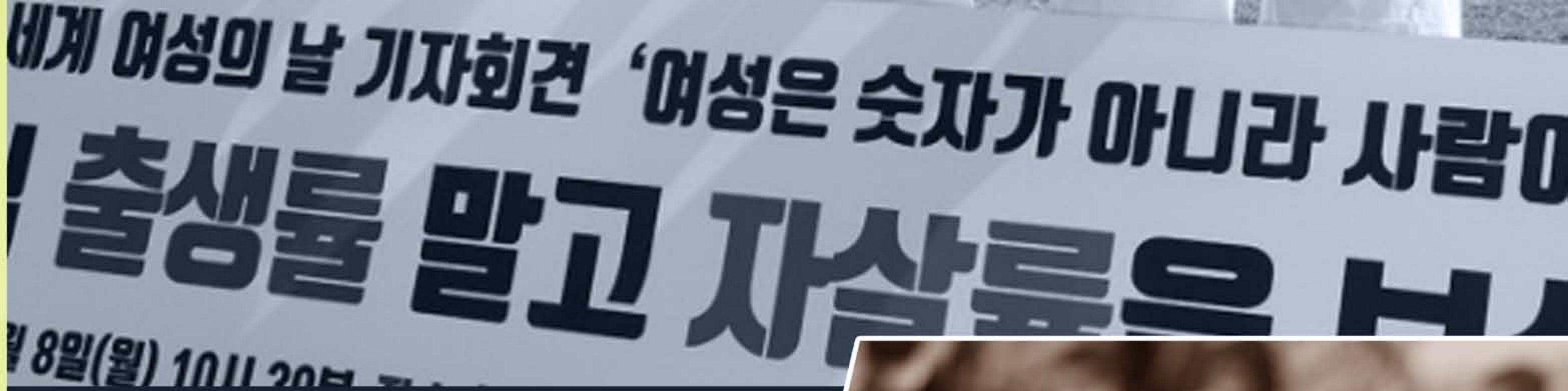
어머니, 그 부름은 같아도

공화국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이 땅의 천만자식들이 더없이 경건하고 진심어린 감사의 정을 담아 어머니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있다.

온 집안, 아니 온 나라가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음짓는 어머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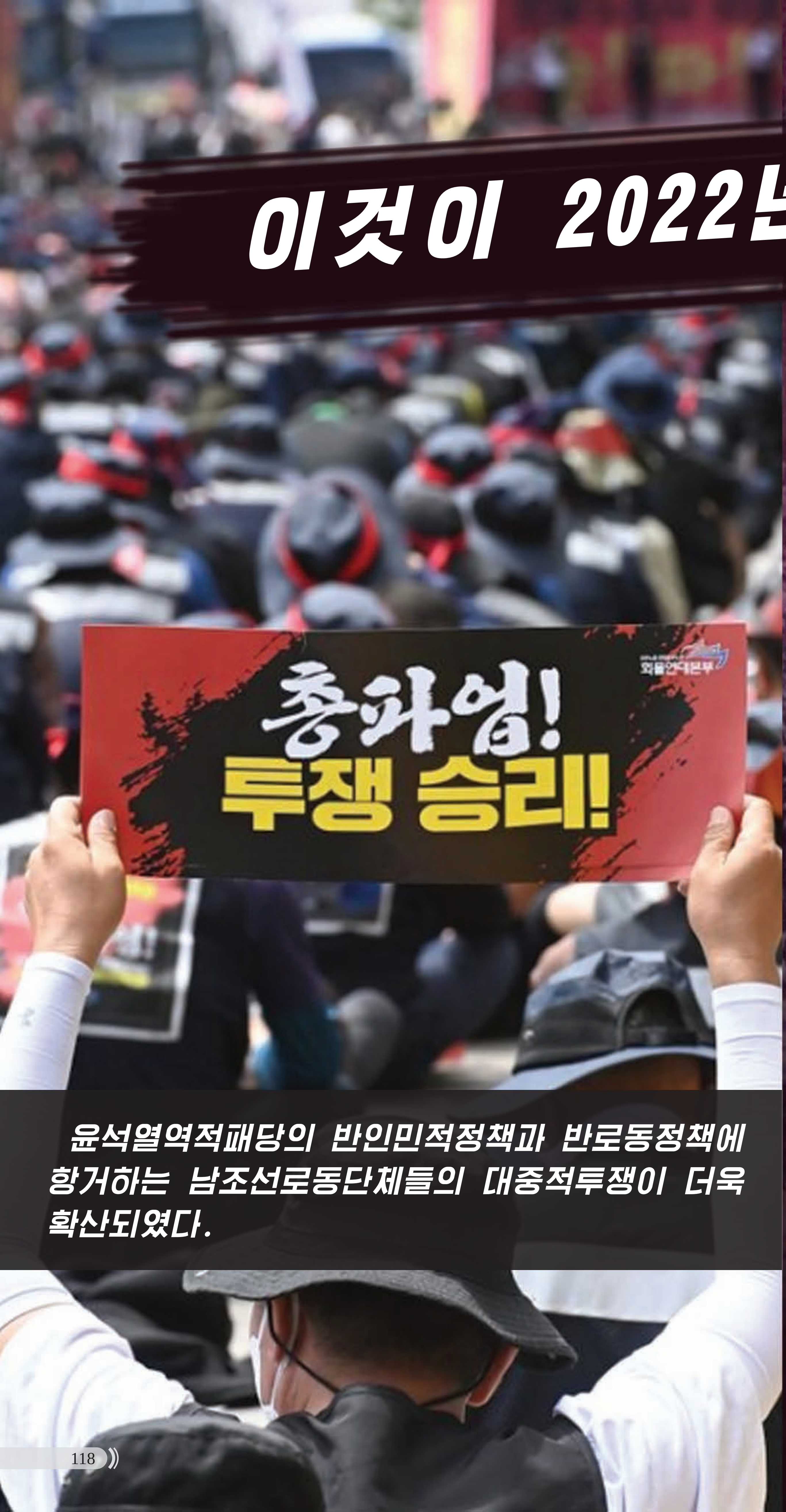
그들의 얼굴마다에 세상에 둘도 없는 만복의 주인공이라는 긍지, 조선녀성으로 태여난 남다른 자부가 어리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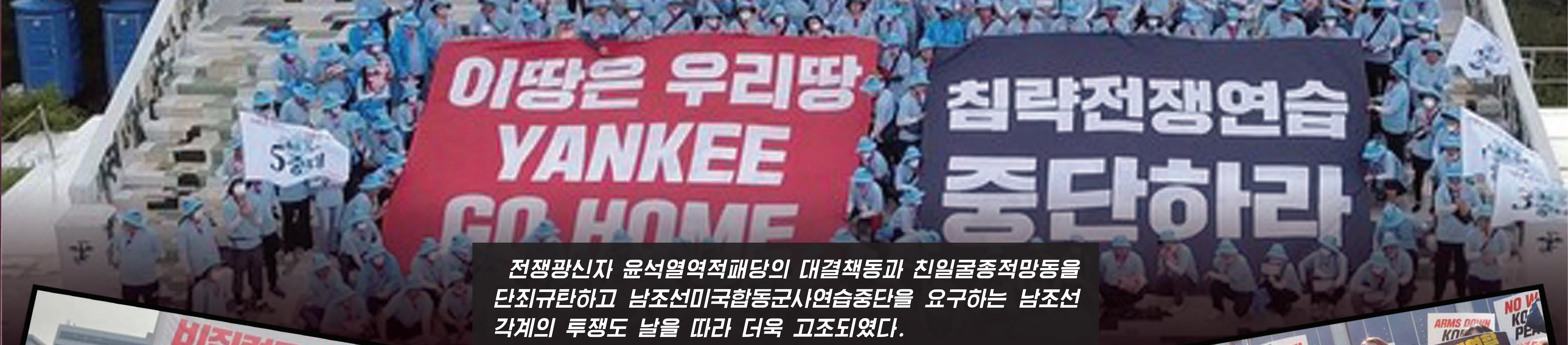
남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제도를 잘못 만난탓에 결혼, 해산, 육아와 같은 초보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며 버림받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만연되는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천시와 학대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남조선의 녀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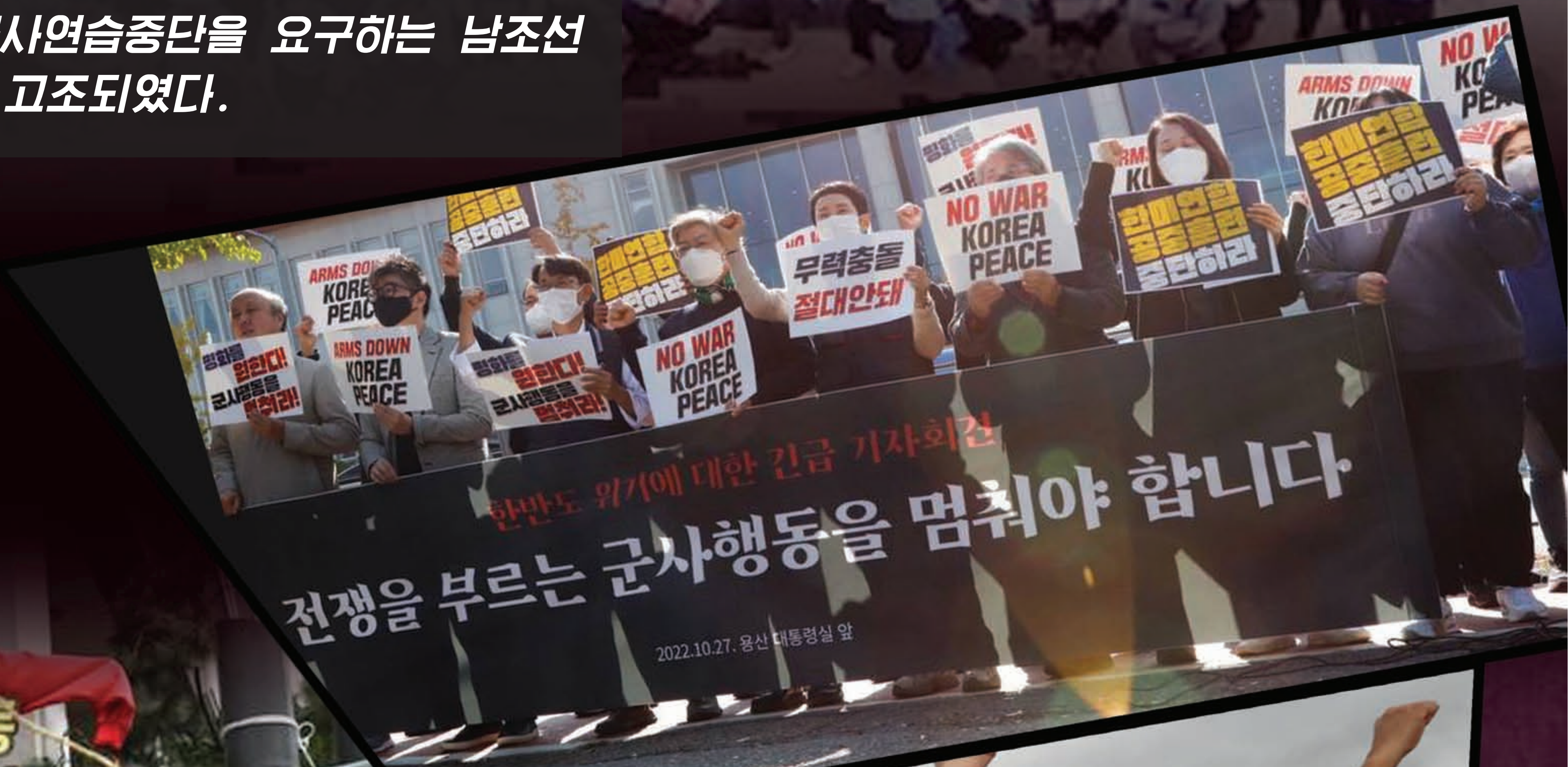
이것이 2022년 남조선의 민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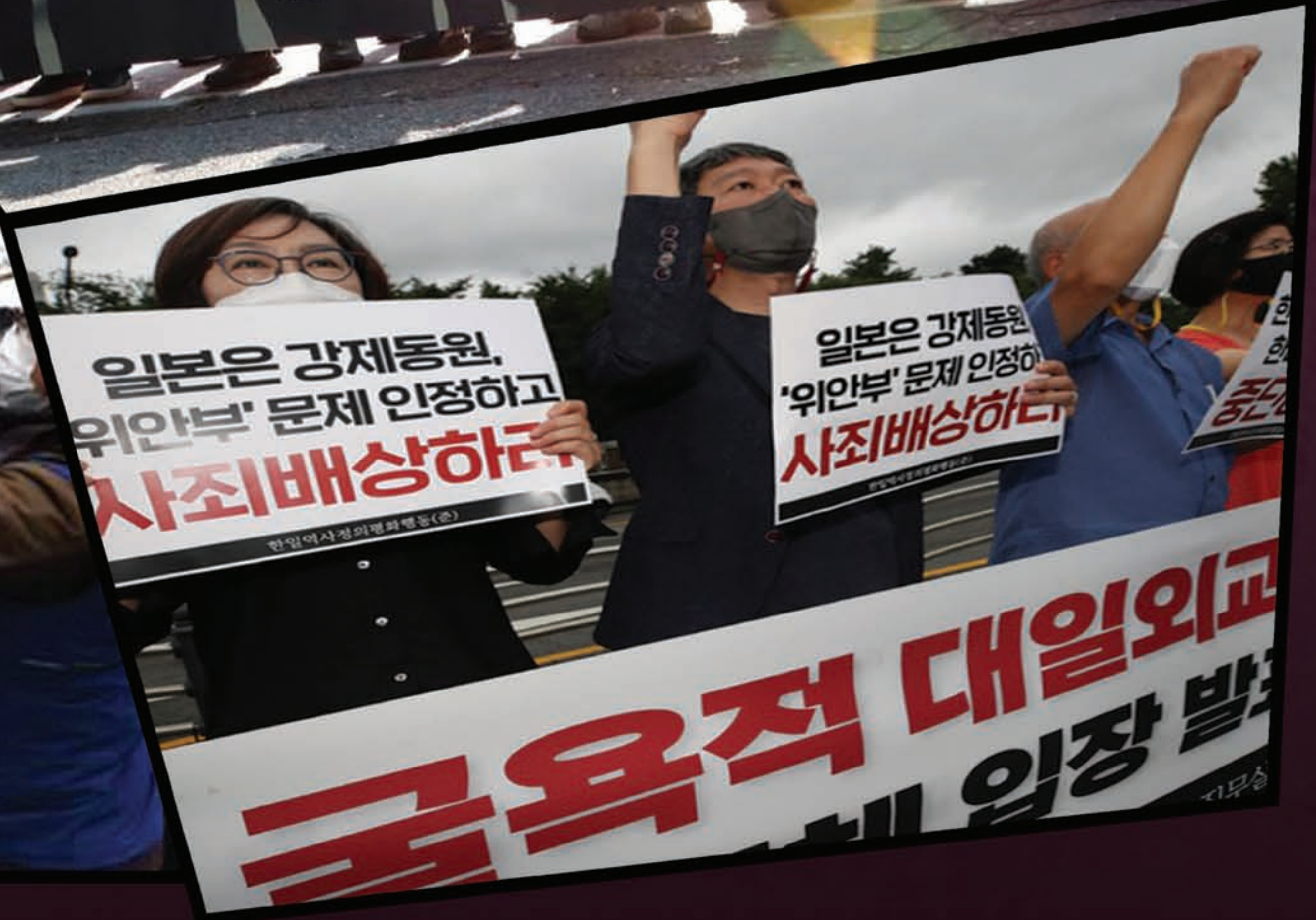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정책과 반로동정책에 항거하는 남조선로동단체들의 대중적투쟁이 더욱 확산되였다.



전쟁광신자 윤석열역적패당의 대결책동과 친일굴종적망동을 단죄규탄하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도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였다.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각계층 단체들의 대중적집회와 시위, 초불투쟁이 남조선 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민족음식

동치미

동치미는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던 김치의 한 종류이다.

초겨울에 담그는 동치미는 봄내, 여름내 먹을수 있다.

특히 동치미는 국물이 맑고 산듯하며 청신하고 찡하여 여름철에 먹으면 시원하고 가슴이 확 열리는듯하다.

동치미는 다른 김치와는 달리 양념을 적게 쓰고 국물을 많이 부어 만든다.

동치미는 무우를 기본으로 하여 만드는데 무우를 밭에서 뽑아 인차 담글수록 상쾌한 맛이 더 나며 독은 땅에 묻어야 더 시원하면서도 좋은 맛과 향기가 난다.

파, 마늘, 생강, 배, 밤, 준치젓, 실고추 등 양념을 섞어만든 김치 국물을 독에 부어넣고 잘 봉하여 김치를 익히기때문에 동치미는 그 맛이 특별하다.

이렇게 만든 동치미는 김치물이 달고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어 이름난 평양랭면의 국수물로도 리용한다.

동치미는 특색있는 민족음식으로서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글 장윤정

옛 그림

김홍도와 그림 《마당질》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인물주제화로 화단을 빛내인 김홍도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미술을 대표할만큼 널리 알려진 유명한 화가였다.

1745년에 출생한 그는 자를 사능, 호는 단원, 단구, 서호, 고면거사, 취화사 등으로 불렀다.

어렸을 때부터 뛰여난 그림재능을 보여준 그는 도화서 화원으로 있다가 그림을 잘 그려 현감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가지고 있었으나 언제나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근면한 로동생활과 락천적이며 소박한 성품을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 사실주의회화발전에 기여하였다.

김홍도는 인물주제화에서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장면과 등장인물들의 성격묘사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그 생활을 풍부하면서도 독특한 기법으로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 《대장간》, 《마당질》, 《베짜기》 등에는 고된 로동속에서 단련되고 로동생활을 귀중히 여기는 근로하는 인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성격과 생활을 그대로 재현하고있다.

특히 《마당질》에서 담배대를 문채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누워 일군을 감시하는 량반지주와 이그러진 표정으로 벼단을 내리치는 더벅머리총각 등의 형상은 화가가 생활속에서 찾아낸 형상들로서 그가 주인공들의 성격과 심리를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김홍도는 묘사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다음 그것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림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였다.

글 윤금철

냰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69ㄷ

루계 413

ISSN2305 8544